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2. 10. 25
해외동향부 (제 6346)

■ **주요 뉴스: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, 경기하강 신호 발신, 일부 통화긴축 완화 기대로 연결**

○ 미국 재무장관, 국채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

○ 영국 차기 총리, 수낵 전 재무장관 확정. 정책신뢰 회복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 하락

○ 일본은행 총재,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저금리 정책 지지

■ **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**

주가 상승[+1.2%], 달러화 약보합[-0.02%], 금리 상승[+3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3/4분기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매수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건축 및 소매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1.4% 상승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
유로화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9% 절하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FOMC에서의 0.75%p 인상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내년 ECB의 통화긴축 완화 가능성 등으로 9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44.2원, +4.5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0/24일	10/2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97.3	3,752.8	1.19%
	유럽	401.84	396.29	1.40%
	중국	2,977.6	3,038.9	-2.02%
	일본	26,975	26,891	0.31%
	한국	2,236.2	2,213.1	1.04%
환율	달러지수	111.99	112.01	-0.02%
	유로화	0.9874	0.9862	0.12%
	엔화	148.91	147.65	-0.85%
	위안화	7.2630	7.2306	-0.45%
	원화	1,439.7	1,439.8	0.01%

		10/24일	10/21일	전일대비
국채금리 10y	미국	4.24%	4.22%	3bp
	독일	2.33%	2.42%	-9bp
	영국	3.75%	4.05%	-31bp
CDS 5y	한국	64bp	62bp	2bp
	중국	134bp	120bp	14bp
위험지표	EMBI+	-	477	-
	VIX	29.85	29.69	0.54%
원자재	WTI유	84.58	85.05	-0.55%
	구리	343.1	347.5	-1.27%
	금	1,649.8	1,657.7	-0.48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, 경기하강 신호 발신. 일부 통화긴축 완화 기대로 연결

○ 미국, 유로존, 중국 등 주요국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등으로 경기하강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

○ 미국의 10월 S&P 글로벌 종합 PMI는 47.3으로 전월(49.5) 및 예상치(49.1) 하회. 비용 증가와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둔화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향후 경제전망 관련 신뢰 역시 급격히 저하(S&P의 Chris Williamson)

○ 유로존의 10월 S&P 글로벌 종합 PMI도 47.1을 기록하여 전월(48.1) 및 예상치(47.5) 대비 낮은 수준. 이는 '20년 11월 이후 최저. 이번 결과는 유로존이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에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(Capital Economics)

○ 중국 3/4분기 성장률은 3.9%로 전기(0.4%) 및 예상치(3.4%) 상회. 이는 코로나 19 봉쇄 등으로 둔화되었던 국내 수요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일부 회복되었기 때문. 반면 3/4분기까지 연간 성장률은 3.0%로 정부 목표(5.5%)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수출과 건설활동 부진이 지속되는 둔화 요인 내포

○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기.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및 정치사상에 기반한 경제 정책 등이 향후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(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-Pritchard)

○ 다만 일부에서는 경기하강 신호들이 명확해질수록 각국의 통화당국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. 연준은 그 동안 자신들이 유도했던 경기둔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, 통화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(Chase Investment Counsel의 Peter Tuz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국채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

○ 옐런 장관은 최근 국채시장에서의 유동성 감소를 인식하고 있지만, 전체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. 국채시장이 보다 잘 작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최근 브로커와 딜러의 시장중개능력이 시장 규모에 걸맞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

■ **Morgan Stanley, 단기 측면에서 미국 주가의 상승을 예상**

○ Michael Wilson 스트래티지스트는 인플레이션 저하 및 금리인상 속도 둔화 기대 등으로 주가가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. S&P500 지수는 최근 저점(3577.03)에서 최대 15% 상승할 수 있으며, 경기침체 가능성도 일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

■ **유럽 가스 선물가격, 온화한 날씨 및 공급 확대 등으로 6월 이후 최저**

○ 10/24일 유로존 가스 선물 가격은 99.17유로/MWh를 기록하여 전일비 13% 하락. 이는 8월 고점 대비 70% 낮은 수준. 이러한 하락세는 12월에도 지속될 전망. 전문가들은 가스 선물가격의 하락 안정은 역내 국가들이 물가안정 및 경기침체 회피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
■ **영국 차기 총리, 수낵 전 재무장관 확정. 정책신뢰 회복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 하락**

○ 페니 모몬트 원내대표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유일한 보수당 대표 후보로 등극. 수낵 전 장관은 재정정책 관련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이에 영국 주요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(10Y: 3.75% -31bp)

○ 한편 영란은행 람스덴 부총재는 국채가격 상승이 정책신뢰 회복의 신호라고 평가하고,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금 및 지출계획이 신뢰 개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. 다만 금리인상으로 일부 대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,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

■ **일본은행 총재,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저금리 정책 지지**

○ 구로다 총재는 최근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발언. 임금상승을 유도하면서 2%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. 또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,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4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: 0.1, 8월(0.1), 예상치(-0.04)

○ 중국 9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2.5%, 8월(5.4%), 예상치(3.3%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**미국 금리인상, 파급 효과는 `23년 이후 여타국 등에서도 발현 - Oxford Analytica**
(US Fed policy focuses on 'rational inattention')

○ 연준은 11월 FOMC에서 0.75%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연말 연방기금금리는 4%를 상회할 가능성

○ 연준 금리정책은 18~24개월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. 따라서 금리인상의 체감도는 `23년 중반 이후 `24년 초까지 가장 높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. 한편 연준은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물가 수준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기를 기대

○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강세로 인한 여타 채무국의 부담 증가와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교역국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

■ **글로벌 증시, 향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 - Financial Times**
(Bear market rhymes point to earnings slump)

○ 금년 글로벌 주가는 연초 이후 25% 하락.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세계 상장기업의 주당순이익(EPS)은 금년과 내년 각각 3%, 9% 증가 예상(MSCI). 미국의 경우 금년과 내년 증가율이 각각 0.5%, 9.7%로 추정. 이는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기간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것과 상이

○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는 물가상승의 결과. 오히려 이윤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, 최근 P&G 역시 양호한 분기별 매출에도 이윤폭이 축소. 고물가 통제로 제품가격 상승이 멈추면 이익은 줄어들 소지

○ 향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더욱 구체화된다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. 이에 내년 증시도 약세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

■ **미국 주택시장,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긍정적 요인도 존재 - 블룸버그**
(Two Bright Spots in a Cooling Housing Market)

○ 모기지 금리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호한 수요와 견조한 노동시장 여건이 낙관론을 뒷받침

○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인 수주잔고('22년 9월 기준 170만건)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건설 노동자의 실업률과 건설업 침체위험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

■ **중국 경제, '6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려울 전망 - Financial Times**
(China's economy will not overtake the US until 2060, if ever)

○ 시진핑 정부는 10년 내 중국의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구감소, 과도한 부채, 생산성 둔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는 이를 어렵게 하는 요소.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는 단계에 진입

○ 중국은 그 동안 대규모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성장을 견인. 향후에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. 게다가 위안화 가치 하락, 주요국과의 무역갈등 등도 향후 성장에 장애요인

■ **일본 당국의 엔저 대응,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역부족일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Japan made intervention of at least $30bn prop up yen)

○ 10/21일 엔화가치 급락에 따라 당국의 금년 두 번째 시장 개입(최소 300억 달러 이상 규모) 정황이 관측(달러당 151.94엔→144.50엔, 장중). 금번 조치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외환시장 종료 이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

○ 1.3조달러 규모의 일본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최대 10회 추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(BofA). 다만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 달러화 매도 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소지

■ **미국의 금리인상 속도,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 - 블룸버그**
(How Front-Loading Rate Hikes Risks Financial Instability)

■ **영국 신임 총리, 경제문제 해결 위해 정치적 안정 회복 노력이 중요 - Financial Times**
(Rishi Sunak can restore sanity, but stability will be a harder slog)

■ **신흥국 채권시장, 고물가 통제 시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Emerging market bond slump creates opportunities for investor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S&P500 및 KOSPI

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 : 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

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 : Bloomberg

VIX 및 EMBI+

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